



한국 수영 사상 첫 세계신기록 보유

국제수영연맹, 고교생 황선우 자유형 200m 1분45초92 주니어新 공인

지난해 국가대표 선발대회 기록 FINA 홈페이지에 이름 올려

한국 수영이 드디어 시니어와 주니어를 통틀어 사상 처음으로 국제수영연맹(FINA) 공인 세계 기록 보유자를 품게 됐다.

한국 수영의 희망으로 떠오른 고교생 황선우(18·서울체고·사진)가 새 역사의 주인공이다.

27일 대한수영연맹에 따르면 FINA는 전날 연맹에 서신을 보내 '황선우의 남자 자유형 200m 기록과 관련한 증빙서류 검토를 마쳤다'면서 '26일자로 세계주니어기록으로 공식 인정한다'고 말했다.

FINA는 '공식 인증서는 우편으로 보낸다'고 덧붙였다.

대한수영연맹은 인증서를 받게 되면 황선우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황선우는 지난해 11월 19일 김천 실내수영장에서 열린 2020 경영 국가대표 선발대회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서 1분45초92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박태환이 2010년 11월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딸 때 세운 한국 기록(1분44초80)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세계주니어신기록이었다.

일라이자 위닝턴(호주)이 18세였던 2018년 12월 맥도널드 퀸즐랜드 챔피언십에서 작성한 종전 기록(1분46초13)을 0.21초 단축했다.

연맹은 이후 도핑 테스트 음성 결과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춰 FINA에 기록 공인 요청서를 제출했다.

FINA는 기록 수립 두 달여 만에 마침내 공인 소식을 연맹에 전함과 동시에 홈페이지에도 롱코스(50m) 남자 200m 세계주니어기록 보유자로 황선우의 이름을 새로 올렸다.

FINA의 공인으로 황선우는 우리나라 수영 선수로는 최초로 세계주니어기록 보유자가 됐다.

우리나라는 시니어와 주니어, 롱코스(50m)와 쇼트코스(25m) 부문을 통틀어 FINA 공인 세계 기록을 보유한 선수가 없었다.

FINA는 유망주의 동기 부여를 위해 2014년 3월부터 만 18세 이하의 남녀 수영 선수들을 대상으로 세계주니어기록을 집계해 관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둑 신민준, 첫 메이저 우승 도전

다음달 커제와 LG배 결승 3번기

신민준(사진) 9단이 생애 첫 메이저 세계대회 타이틀에 도전한다.

신민준은 다음 달 1일과 3·4일 한국기원과 중국기원에서 온라인 대국으로 열리는 제25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결승 3번기에 출격한다.

결승 상대는 중국 랭킹 1위 커제 9단이다.

한국 랭킹 4위인 신민준은 앞서 커제와 6번 맞붙어 2승 4패를 거뒀다.

신민준은 이번에 처음으로 메이저 세계대회 결승에 올랐다.

LG배에서는 두 차례 본선에 올라 7승 1패로 좋은 기록을 냈다. 2018년 4강이 최고 성적이다.

32강부터 대만 왕위안원 9단, 중국 덩하오 6단,



이태형 7단을 연파한 뒤 4강에서 전기 대회 준우승자 박정환 9단에게 승리하며 결승 티켓을 따냈다.

커제는 8차례 메이저 우승컵을 들어 올렸지만, LG배 결승에는 처음 진출했다.

커제는 32강에서 박건호 4단을 제압했고, 16강에서는 '디펜딩 챔피언' 신진서 9단을 꺾었다. 이후 원성진 9단, 변상일 9단까지 한국 기사들을 차례로 누르고 결승에 올랐다.

조선일보사가 주최하고 LG가 후원하는 LG배는 총 13억원 규모로 열리며 우승 상금 3억원, 준우승 상금 1억원을 내준다. /연합뉴스

최철한, 8년만에 '바둑 명인' 오를까

SG배 명인전 본선 진출

최철한(사진) 9단이 8년 만에 명인전 우승에 도전한다.

27일 한국기원에 따르면, 최철한은 제44기 SG배 명인전 예선을 통과했다.

지난 11일부터 26일까지 서울 한국기원 대회장에서 열린 예선에서는 9명의 본선 진출자를 배출했다.

최철한은 2013년 제41기 대회에서 이세돌 9단(은퇴)을 꺾고 명인에 등극했다.

3차례 명인에 올랐던 박영훈 9단은 예선 1회전에서 6촌 동생인 박종훈 4단에게 패하며 4번째 우승 도전에 실패했다.

예선 참가자 중 랭킹이 가장 높은(3위) 변상일



9단은 유창혁 9단, 이상현 5단, 양우석 4단, 윤찬희 8단을 연파하고 본선에 올랐다.

본선에는 시드권자들이 기다리고 있다. 랭킹 시드를 받은 신진서·박정환 9단과 후원사 시드를 받은 이창호·최정 9단이 예선 통과자 12명과 함께 다음 달 19일부터 매주 금·토요일 16강 패자부활 토너먼트로 결승 진출자를 가른다.

결승은 3번기로 열린다. SG그룹이 후원하고 한국일보사와 한국기원이 공동 주최하는 제44기 SG배 명인전의 우승 상금은 6000만원, 준우승 상금은 2000만원이다. /연합뉴스

보스턴마라톤 10월로 연기...코로나가 변수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대회를 취소했던 보스턴 마라톤이 올해에는 대회 개최일을 4월에서 10월로 미뤘다.

보스턴 육상연맹은 27일(한국시간) "올해 대회 개최일을 10월 11일로 정했다"고 발표했다.

물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여야 대회를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다.

보스턴 육상연맹은 "조심스럽지만,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을 품고 2021년 보스턴 마라

톤 개최일을 발표한다"며 "연맹은 지역 사회와 주 정부, 보건 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대회를 준비할 것이다.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건, 참가자와 관계자들의 건강과 안전이다"라고 밝혔다.

1897년에 시작한 보스턴마라톤은 2020년 역사상 처음으로 대회를 취소했다.

조직위는 작년 코로나19가 확산하자 대회 개최를 4월 20일에서 9월로 미뤘다가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더 심각해지자 같은 해 5월 "올해는 대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한국 사이클 국가대표 상비군 선수들이 27일 강진에서 훈련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사이클 국가대표 상비군 강진서 전지훈련

최기락 감독 "도로·날씨 등 최적"

한국 사이클 국가대표 상비군(감독 최기락)이 2월 2일까지 강진군에서 전지훈련을 한다.

선수 37명과 협회 임원 등 45명으로 구성된 국가대표 후보선수단은 강진군 일원 도로와 종합운동장 내 웨이트트레이닝장에서 몸만들기로 훈련을 소화한다.

최기락 감독은 "강진군은 정비가 잘 된 도로 조건과 따뜻한 날씨가 선수들의 컨디션을 끌어 올리는 데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며 "강진만 일대 해안을 따라 즐길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일품이다"고 칭찬했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국가대표 3명이 포함된 사이클 선수단을 운영하는 강진군이라서 사이클에 필요한 사람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지역"이

라고 말했다.

이 군수는 27일 도로훈련에 나서는 선수단에 재배 농가들이 응원의 뜻으로 보내준 강진의 특산물인 장미를 선물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방역을 위해 선수단은 1인 1실을 쓰고 훈련 참가자 전원은 코로나19 진단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9번째 바뀐 1위 팀...EPL 선두싸움 치열

맨시티, WBA 5-0 꺾고 시즌 첫 선두

자고 나면 선두가 바뀌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맨체스터 시티(맨시티)가 올 시즌 처음으로 선두에 오르면서 리그 역사 하나가 새로 쓰였다.

맨시티는 27일(한국시간) 영국 웨스트 브로미치의 호손스 경기장에서 열린 2020-2021시즌 EPL 웨스트 브로미치 엘비언(웨스트브롬)과의 원정 경기에서 일카이 칸도안인 두 골을 터뜨리는

등 소나기골을 몰아쳐 5-0으로 대승했다. 맨시티는 승점을 41(12승 5무 2패)로 늘려 연고지 맞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 승점 40·12승 4무 3패)를 제치고 올 시즌 처음 리그 1위로 올라섰다.

EPL에 따르면 맨시티는 올 시즌 경기일 종료 기준으로 1위를 차지한 9번째 팀이다. 이는 역대 EPL 최다 기록이다.

앞서 1998-1999시즌, 2001-2002시즌, 2002-2003시즌, 2007-2008시즌에 각각 다른 8개 팀이 1위를 차지한 적이 있다.

새 시즌을 시작한 지난해 9월 아스널을 시작으로 에버턴, 레스터시티가 선두에 올랐고 10월 리버풀을 거쳐 11월 사우샘프턴과 토트넘, 12월 첼시도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새해 들어서는 맨유가 선두로 오른 뒤 이날 맨시티가 1위로 도약했다.

27일 현재 이번 시즌 EPL 20개 팀 중 10위 안에서 1위를 못 해본 팀은 4위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 9위 애스턴 빌라뿐이다.

EPL은 신종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제한 조치로 집에서 TV로 경기를 보는 팬들을 위해 여러 날에 경기를 나눠서 치르도록 한 리그 일정이 1위 팀의 잦은 변화에 어느 정도 작용했다고 풀이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즐거움
문화
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소울
2관	소울
3관	캐롤, 명탐정 코난: 진홍의 수학여행, 런
4관	세자매
5관	소울, 런
6관	소울
9관	소울, 북스마트
7관 씨네키움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 커넥트 빛의 아버지: 파이널 판타지 XIV
8관 씨네키움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 도굴, 이웃사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식

광주시립발레단 수시공연
발레 살롱콘서트 #1

일시 : 2021. 02. 06.(토) 14: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522-8716

광주시립교향악단 GSO 오페라 콘서트 I
비엔나의 봄

일시 : 2021. 02. 24.(수) 11:00, 19:3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524-5086